



‘교수 불자회’ 창립 준비 소광섭 교수

서울대에 불교바람 일으키는 두 주역

관악산 서울대 캠퍼스에 요즘 ‘불교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서울대 21개 단과대·대학원 소속 불자 교수들이 통합 불자회 결성을 추진하고, 불교학생회 지원책을 내놓았다. 잠깐 일다 그칠 바람이 아닌 것 같다. 순풍에 돛도 달았다. 서울대 교직원 불자모임인 ‘불이회’의 두 교수가 키를 잡았다. 소광섭 교수는 ‘(가칭)서울대 교수불자회’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불자회 외연 넓히기를 하고 있고, 총무 우희종 교수는 ‘성경 새로 읽기’ 모임을 주도하며 ‘신행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들이 서울대에 일으키는 ‘불바람’ 속으로 들어가보자.

“모여서 좋고 공부해서 더 좋은 ‘관악 불심’ 꽃 피웁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 그간 단과대와 대학원별로 흩어져 제각기 활동했던 불자 교수들이 한 데 모인다. 또 전공별로 불교와 만나는 자리도 마련된다. 3월 3일 자연대 25동 310호 연구실에서 만난 소광섭 교수(59·물리학과·가톨릭)는 향후 ‘서울대 교수불자회’의 밑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개별적으로 불자 교수 모두는 보배들입니다. 하지만 모이지 않는다면 그 하나하나의 구슬은 초라해 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주 모여 법에 대해 논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여야 합니다. 올해 부처님오신 날에는 관악산 서울대 캠퍼스에 연등 물결이 일겁니다.”

불자 교수·학생·직능 합동법회로 한마음 신행·연구 힘 받을 것

소 교수는 늦어도 오는 5월 26일 부처님오신 날 전후로 창립법회를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월 20일에 교수불자회 창립준비위원장의 중책을 맡았고, 지금은 단과대와 대학원별 준비위원들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조율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 공과대(박영준), 국제대학원(박세일), 농생대(임승빈, 윤여정), 법과대(호문해), 사회대(김재영), 수의대(황우석, 우희종), 인문대(윤원철, 이강재), 의과대(조보연), 자연대(소광섭, 오세정), 치대(배광식) 등 총 10곳의 단과대와 대학원에 준비위원을 위촉했다. 또 불자 교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 1,500여 교수를 대상으로 불자교수 현황 조사를 추진 중이다.

소 교수는 ‘신행’과 ‘연구 활동의 상호작용’ 등에 불자회 운영의 방점을 두겠다고 강

조했다.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자로서의 정기적인 신행활동과 함께 회원들의 전공에 따른 불교연구를 적극 장려할 생각입니다. 불교와 전공을 접목한 연구 활동을 벌이는 불자 교수를 발굴해 교계는 물론 학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교연구의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우희종 교수(사진 왼쪽)와 회원들이 신약복음서를 읽고 있다. 사진=박재관 기자

소 교수는 이를 위해 그동안 발표된 관련 논문들을 묶어 논문을 발간하는 한편, 교수불자연합회와의 연계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 교수는 신발적으로 활동해온 단과대·대학원별 불교학생회, 직능 불자모임과 합동법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재학생 불교모임의 활성화 방안으로, 불자교수와 학생을 1:1로 연결하는 ‘후견인’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불교신행공동체를 일궈, 서울대에 ‘불교바람’을 조직적으로 일으키겠다는 의지가 반영

된 것이다. 캠퍼스 불심을 이끌겠다는 소 교수. 소 교수는 “회원들 각자 배운 불법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지성인으로서 대사회적인 역할도 게을리 않을 때 대학과 사회가 건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 통해 불교 새롭게 인식’
○... 2월 28일 오후 7시 서울대 수의과대

학 714호 강의실. 불이회 총무 우희종(46·수의대 면역학교실·여산) 교수가 이끄는 ‘성경 새로 읽기’가 한창이다. 우 교수가 한 구절을 읽자 5명 회원들이 제각기 해석을 내놓았다. 서로 다른 시각의 절대 존중, 논의 방식의 자유로움이 이 모임의 특징이다. 고 정된 ‘인식의 틀’을 고집하지 않는다. 왜 기독교의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일까? “언어가 갖는 한계성은 종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의 언어’로 너무 길들여지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길들여짐은



‘성경 새로 읽기’ 주도 우희종 교수

‘깨어있음’에 독(毒)이 됩니다. 제가 5년간 해온 참선 모임을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매일 한 차례 성경 공부 모임을 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 다시 ‘불교바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들의 성경 공부는 불교신행이 ‘절름발이’가 되어서 안된다는 우 교수의 지론에서 나왔다. 산속에 있을 때는 산이 높을 줄 모르지만 밖에서 보면 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불자인 우 교수의 입에서 ‘예수님 말씀’이 주저 없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답을 통해 참여한 논쟁이 오가고 종교간 접점을 찾지 못해도, 이 공부할 하면서 불교에 대한 믿음이 더 명확해졌다고 토로한다.

매월 한번씩 마주 앉아 성경 읽고 자유토론 깨어있는 불자되기 도움

“오래 불교에 대한 신심이 깊어졌습니다. 가르침이 다르다고 다른 종교를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간 종교는 역사, 시대적 상황에 따라 ‘표현’과 ‘관점 차이’만 달리 해왔을 뿐입니다. 자기 것으로의 소화, 즉 ‘자기변화’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인호(사법연수원생·36) 씨의 말이다. 우 교수는 문지도, 논의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느끼고 깨닫는 것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라는 것이 우 교수의 설명이다. 우 교수는 현재 매월 1회 열고 있는 ‘성경 새로 읽기’ 모임을 더 자주 가질 예정이다. 불교를 넓은 시각에서 공부할 때 대학 내 포교활동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MBC불교연구회

문화방송 불교연구회는 어느 때보다 TV영향력이 막강해진 만큼 불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바른 마음으로 시청자들의 귀와 눈을 밝히는데 혼신의 힘을 바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구체적인 생활로 심신이 지친 불자와 동료 직원들에게 마음을 정화하고 정신을 순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5월 첫 모임을 갖고 7월 봉선사에서 창립했습니다. 그 해 12월부터는 서울 여의도포교원

명찰 순례법회 때 지방국 불자회와 교류 적극적인 신행 위해 ‘연구회’ 명칭 사용



MBC 불교연구회원과 언론인 불자들이 지난해 여의도포교원에서 언론인불자연합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모습.

한진 스님을 모시고 매월 셋째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출범 1주년 때는 봉선사에서 회원가족과 함께 수계법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기법회를 매월 개최하고 년 4-5회의 명산 대찰 순례법회를 다니며 전국의 문화방송 직원들과 함께 법우회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찾아간 사찰만 해도 합천 해인사, 단양 구인사, 김천 직지사, 충남 갑사, 5대 적멸보궁 등 내로라 하는 명산대찰을 순례했습니다.

참, 우리 불자회의 이름이 왜 ‘연구회’인지 궁금하시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립 초기에 불교 신행 단체로 결성된 했지만, 직언의 특성상 한곳에 모여 법회를 봉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불자회 이름을 신행회 같은 명칭보다 생활 속에서 항상 불교적인 소양을 갖추

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뜻에서 ‘연구회’로 지었습니다. 물론 그간 걸어온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IMF로 회원들의 30%가 명예 퇴직하여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자주 모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 때는 명맥만 유지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퇴직 등으로 회원수가 줄고 있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법회의

장영호 회장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임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법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도량에 불자들의 모든 바람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생전 예수재법회

일	날짜	요일	특별법회/행사내역	장소
입재	2.29	일	입재법요식	우리절
초재	3.07	일	윤달삼사순례	보문사
이재	3.14	일	주장자법회	우리절
삼재	3.21	일	태아산신신제	우리절
사재	3.28	일	점안법요식	우리절
오재	4.04	일	서용크스님사리진견법회	백양사
육재	4.11	일	관장법회	우리절
막재	4.18	일	봉송법요식	우리절

제3계 태화산신신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일원곡>>제8권을 나누어 드리고 제6계 관정법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역시 동봉스님이 사언절로 읊진 <<지장경>>을 나누어 드립니다. 또한 제4계 점안법요식에서는 예수제용품을 비롯하여 금강경탑다라니와 광명진언탑다라니를 점안합니다. 예수제용품은 회향 때 살라드리지만 이번 윤달에 우리절에서 점안한 탑다라니는 종이 아닌 비단 위에 그려진 것으로써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다시없는 좋은 효도선물이 될 것입니다.